

어문연구 제5권 1995년 2월

아폴로적 사랑과 디오니소스적 사랑

박 옥 선*

Ok-Sun, Park. (1995). Apollonian love and Dinonyisian love.
Language & Literature Research, 5, 47-69.

This is an attempt to study the dualism of love in Shakespeare's *Sonnets*.

The Sonnets is largely divided into two sequences : the first sequence, the sonnets to the fair youth(1-126), and the second sequence, to the dark lady(127-54). The youth group tells a story of high devotion, in the course of which the poet discovers that the reality of his love is love itself rather than anything he receives from the beloved. The dark lady group is low and revolves around the theme of erotic love.

In the *Sonnets* we can find a fine contrast between the two types of love as well as the Apollonian fair youth and the Dionysian dark lady. The language addressed to the fair youth is that of Petrarchan sentiment and praise, conventionally used about a lady. In sonnet 20 the poet thinks of the fair youth as apt for woman's love in not having female fickleness. The poet shows that this love for he youth is spiritual, not sensual. The phrase "master-mistress" has been the undoing for both of those critics who feared a homosexual interpretation and of those eager for it. But it is the poet's way of speaking about an emotional reality. The sonnets to the dark lady show the world of sensual love or lust which begins in pleasure and continues in moral loathing and pain. Compared with the youth group sonnets, this sequence stresses the sensuality of the poet and the dark lady. The two kinds of love, however opposed they may be, appear as the two aspects of a single experience, a single pattern. It is the poet's dual interpretaion of life and human nature.

In conclusion, Shakespeare searches in his *Sonnets* for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true and ideal love as a way to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overcome death and tyranny of time.

I.

셰익스피어 소넷의 주요 주제로 되어 있는 사랑, 시간 등은 기실 그의 독창이 아니라 Ovid, Horace 등 로마 시인의 시적 전통의 모방이며 Petrarch, Ronsard 등의 소넷에서도 크게 영향 받은 것이 사실이다. 엘리자베드조의 많은 소넷 시인들이 취급한 주제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은 전통적인 Petrarch식 연애관이며 Chaucer 등의 중세 시인을 통해 영국문학에 주입된 궁정연애(courtly love)의 전통은 엘리자베드조의 소넷 전성기에도 널리 유행되고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미모의 여성에게 사랑의 충성을 맹세하고 연인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외로움을 슬퍼하는 통속적이고 진부한 연애시의 전통을 답습하지 않고 사랑의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자신의 사상과 열망을 주제의 일부로서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얻고 있다.

소넷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서 사랑만을 따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시간을 초극하는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다루게 되면 결국은 시간을 같이 논할 수 밖에 없겠으나 이 글에서는 사랑의 두개의 얼굴, 다시 말해서 남성간의 이상적인 우정과 이성간의 열정적 애정을 이분화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자는 대체로 1-126까지의 소넷에서 다루고 후자는 127-154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그것은 셰익스피어 소넷의 전체적인 구조를 앞의 청년그룹과 뒤의 흑부인 그룹으로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반드시 청년그룹이 청년과 관련된 시인의 사랑 만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며 흑부인 그룹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글에서도 이에 따르기로 한다.

Northrup Frye(Hubler, 38)도 말한 바와 같이 셰익스피어 소넷의 미청년 그룹은 고상한 사랑의 현신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실체는 연인에게서 받는 어떤 사랑이 아니라 바로 사랑 그 자체를 의미하며 페트라르카(Petrarch)나 시드니(Sidney)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고통과 좌절에 차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고상한 인격훈련임이 판명되고 있으며 셰익스피어는 이 미청년그룹에서 보편적으로 사랑의 원천으로 다루어지는 여성연인이 아닌 아름다운 청년을 선택함으로써 연인을 비너스보다는 오히려 에로스와 관련시키는 충격적인 장치를 택했다. 이와 반대로 흑부인 그룹은 육적 사랑을 다루고 있는 시편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소넷 154편은 두 그룹을 중심으로 두개의 상반된 사랑을 기본 구조로 전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청년과 흑부인의 관계가 시인과 청년, 시인과 흑부인의 관계에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따라서 시인이 노래하는 모든 사랑의 진수(眞髓)는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 글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사랑철학이 정신대 육체, 동성대 이성의 이원적 구조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소넷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이와 같은 구조에 어떤 역할적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엘리자베드 시대의 연애시는 대부분 이성간의 애정을 노래했지만 셰익스피어 소넷에는 동성간의 이상적인 우정과 함께 이성간의 육정, 연정이 함께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대조는 니체(Nietzsche)의 비극의 탄생(Birth of Tragedy)의 두개의 근본 원리인 디오니소스적 원리와 아폴로적 원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G. Wilson Knight(26)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소넷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조법은 서구문학의 광범한 영역을 압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니체의 비극의 탄생의 두 뿌리가 되는 원리인 디오니소스적 원리와 아폴로적 원리다. 이것은 가장 널리 적용되는 원리로서, 전자는 어둡고 신비스러운 것, 창조적 기원 내지 목적 등을 나타내고 초자연적인 것, 불가사의한 것, 酒神祭적인 것, 광람스럽고 비도덕적 내지는 몰도덕적인 것을 대변한다. 그것은 잠재의식적인 것 내지 집단의식적인 것 즉 죽음을 나타낸다. 이것을 대변하는 예술 혹은 언어는 음악이다 후자는 빛이며 지적 명료성을 지니고 있고 형태와 모습의 환상이며 개성적이다. 독창적인 것 보다는 피조물을 대변한다. 정신이 건전하며 도덕적, 정치적, 이상적, 의식적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언어는 조각이며 극시와 반대되는 서사시이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 본다면 미청년은 아폴로적 원리를 구현하고 있으며 흑부인은 디오니소스적 원리의 표상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청년은 수려한 용모의 소유자로 나타나 있다.

아도니스를 그려보라, 그 모조품은
그대를 조잡하게 본뜬 것이오 ;
헬렌의 뺨에 온갖 미의 기교가 동원되어도
희랍의상을 걸친 그대를 새로 그려 놓은 것이네.(53:5-8)

Describe Adonis, and the counterfeit
Is poorly imitated after you;
On Helen's cheek all art of beauty set,
And you in Grecian tires are painted new.

청년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폴로적 찬양을 즐긴다.

그대는 미의 축복에 저주를 더하네.
그대의 미덕을 더럽히는 찬사를 좋아함으로.(84:13-4)

You to your beauteous blessings add a curse,
Being fond on praise, which makes your praises worse.

그는 또한 “속세에 살면서 허위의 화장(painting)이 그의 아름다운 뺨을 모방하게 하고 변변치 않은 세상의 미가 장미와 같은 그의 참된 미를 흉내내게 한다.”(67)고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청년의 미가 “채색되어” 묘사되도록 촉구하고 있다.(101)

아 어찌하여 그는 오염된 속세와 함께 살아야 하나,
죄악에 은총 베풀고,
그 죄악을 유리하게 하여주고,
그와 사귀어 그것의 장식품이 되어야 하는가?
왜 거짓 화장이 그의 뺨을 모방하고,
그의 생기없는 살갓에서 죽은 빛을 훔쳐가야 하는가?
어찌하여 보잘것 없는 미가 불순하게 모조 장미를 구해야 하는가?
그의 장미 참되다는 이유로.(67:1-8)

Ah wherefore with infection should he live,
And with his presence grace impiety,
That sin by him advantage should achieve,

And lace itself with his society?
 Why should false painting imitate his cheek,
 And steal dead seeing of his living hue?
 Why should poor beauty indirectly seek
 Roses of shadow, since his rose is true?

1행에서는 부패한 속세에 어울려 미모의 청년이 함께 살아야 함을 탄식하고 2행에서는 세상의 죄를 유리하게 해주고 세상의 장식품이 되어 그들과 사귀다고 힐난한다. 이것은 청년의 미가 독보적임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이다.

진리는 고정된 색깔이 있으므로 채색이 필요치 않으며,
 미 또한 참된 미에 가필이 필요 없으니 ;
 아무것도 섞이지 않으면 최상은 최상이지?
 그가 찬사 필요치 않다 해서 그대 잠자코 있으려는가?(101:6-9)

Truth needs no colour with his colour fixed,
 Beauty no pencil, beauty's truth to lay;
 But best is best, if never intermixed?
 Because he needs no praise, wilt thou be dumb?

진리는 고정된 색이 있으므로 채색을 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청년의 미가 찬사를 받지 말아야 되겠는가고 반문한다.

이와 같이 청년의 아름다움을 세속의 미와 대조시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나 채색에 관한 언급은 모두가 시각의 범주로서 아폴로적 속성이다. 따라서 청년이 디오니소스적 속성인 음악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귀 기울일 음악인 그대여, 왜 음악을 슬피 듣는가?(8:1)

Music to hear, why hear'st thou music sadly?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권유하는 소넷그룹(1-17)에서 청년의 모습은 이성적 성적 매력에 둔감하고 자기애에 빠져 순결을 지니고 있다. 청년의 자기애를 시인은 인간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애를 버리고 결혼하라고 한다. 1에서는 청년에게 “세상에 당연히 되돌려 주어야 할 것”(1:14)을 “먹어버리”지 말도록 경고하면서 독

신을 고수함으로써 자손을 남기지 않음을 꾸짖고 있다. 청년의 자기애는 “무한한 치욕”(2:8)이며 “청춘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빛지고 값는 자에 행복을 주는 것”(6:5-6)이라고 한다.

천부의 부를 누리고 있는 청년이 독신을 고집하는 것은 디오니소스적 관능에 대한 무기력의 반증이랄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아폴로적 속성에 직결되고 있다. 청년의 자기애에 관한 기본 아이디어는 동일 사이클 내의 개개 소넷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통된 상징체계 내지 주제를 도출하고 있는데 1은 2로, 다시 3으로 심상의 연결을 피하고 있고 이것이 한개 소넷군에 동일 모티브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서 자식을 바람은,
미의 장미를 죽이지 않으려는 것,
세월이 가면 장년은 사멸되나
그의 고운 손이 그의 모습 이어가겠네 : (1:1-4)

From fairest creatures we desire increase,
That thereby beauty's rose might never die,
But as the ripper should by time decease
His tender heir might bear his memory :

“미의 장미”는 번영하고 시들고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움의 영원한 순환을 나타내는 상징적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같은 행의 “never die”는 한 세대로는 죽지만 세대를 연결하는 종으로서는 소멸되지 않는 순환의 의미와 통해 있다. 3행의 “세월이 가면 장년은 죽게 되어 있으니” 이러한 생명의 본질을 따르자면 미를 이어갈 상속자가 있어야 한다. 1, 3행에서 increase/decrease가 각운되어 있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데(McCanles, 393) 미가 성장하는 과정은 그것이 소멸되는 과정과 일치 내지 병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4행의 bear는 아버지의 대를 잇는 상속자의 의미와 부합되고 있고, 따라서 상속자는 사랑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기억을 소중히하고 그 자신은 아버지의 소중한 기억이 된다. 또한 자신은 자식을 낳음으로써 자신의 기억은 물론 아버지의 기억까지도 자식이 지니기를 원하게 된다.

소넷1의 기저에는 이와 같이 자신에 집착하는 것은 곧 자기상실이라는

하나의 역설이 질게 깔려 있다고 하겠는데 그 이유는 자아란 집착에 의해 지켜질 수 없으며 타인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Martin, 20) 또한 1은 청년에 대한 칭찬과 비난을 교묘하게 균형지우면서 다의적 표현을 통해 인간사에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하면서도 서로 갈등하는 요소들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와 표현기법은 17까지 일관되어 있는데 한개 소넷이 앞의 소넷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강화시키고 다시 그 다음 것이 그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확대시킨다. 이와 같이 동일 주제와 이미지의 형성 재형성이 계속되면서 점진적으로 전개 반복되는 가운데 일관된 맥, 즉 시간의 인간에 대한 파괴작용, 인간이 시간에 저항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은 청년이 결혼해서 자식을 두어야 한다는 하나의 주제로 귀결되고 있다. Martin (16)이 말한 바와 같이 청년의 자기애는 곧 시간과의 영합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94에서는 자기애의 기만과 불모성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해칠 힘 있으면서 아무도 해치지 않고,
 당장 행할듯 하면서도 행치 않는 사람들,
 남을 감동시키면서 그들 자신은 돌같이,
 냉정해서 움직이지 않고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천국의 은총을 물려받았고,
 자연의 부를 절약해 쓴다 하겠네.
 그들은 자기 얼굴의 영주요 주인이라,
 남들은 그들의 탁월성의 侍從일 뿐.
 여름꽃은 여름을 아름답게 하네,
 그 자신은 다만 살다 죽지만 ;
 허나 그 꽃이 몸쓸 병에 걸린다면,
 가장 보잘것 없는 잡초도 그의 품위를 능가한다네 :
 가장 감미로운 것도 그 행위에 따라 가장 신 것이 되나니 ;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 더 악취를 풍기는 법.(94)

They that have pow'r to hurt, and will do none,
 That do not do the thing they most do show,
 Who moving others are themselves as stone,
 Unmove'd, cold, and to temptation slow.
 They rightly do inherit heaven's graces,
 And husband nature's riches from expense ;
 They are the lords and owners of their face,

Others but stewards of their excellence.
 The summer's flow'r is to the summer sweet,
 though to itself it only live and die ;
 But if that flow'r with base infection meet,
 The basest weed outbraves his dignity.
 for sweetest things turn sourest by their deeds ;
 Lilies that fester smell far worse than weeds.

1행의 “남을 해칠 힘이 있으면서 해칠지 않는 사람”은 2행에서는 “무엇을 행할 것 같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되는데 이것은 또 3행의 “다른 사람은 감동시키면서 자신은 유혹에 둔감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질은 디오니소스적 기질과는 상반된다. 스스로 냉정을 잃지 않는 기질은 금욕주의의 이상이요 아폴로적 정형이다. 청년의 남의 마음을 끌어 들이기만 하는 힘은 그와 정 반대 타입의 인물, 즉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인물을 칭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소넷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혼란 내지 곤혹감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Edwards, 66) 다시 말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사랑할 줄 모르고 자애하는 인물은 결코 바람직한 인간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94는 자기애의 기만과 불모성을 가차없이 표현하고 있지만 시인은 청년에게 도덕적 위협을 가하는 대신 노여움과 사랑, 온건한 비난과 위협있는 용납을 교차시키면서 사랑의 실현을 설득하고 있다.

126은 청년그룹의 결말이며 요약이다.

오 그대, 나의 사랑하는 소년이어, 그대는 시간의 낮과
 세월의 변하기 쉬운 거울을 그대의 손아귀에 넣고 ;
 기울어짐에 따라 원숙하게 되고
 시들어가는 그대 연인들에 그대 원숙해진 감미로운 자태 보여주네—
 쇠퇴를 지배하는 여왕인 자연이
 그대가 나아갈 때 그대를 뒤로 끌어당겨
 그대를 지키려 함은
 세월을 떨치고 가없는 시간을 죽일 목적에 서지,
 허나 자연을 두려워하라, 자연의 기쁨의 총아인 그대여!
 자연은 자신의 보배를 한 때 지닐지 모르나 길이 지니지는 않으리 ;
 비록 늦을지라도 자연의 청산은 이행될 것이며
 자연의 청산으로 그대 양도되리라.(126)

O thou, my lovely boy, who in thy pow'r
 Dost hold time's fickle glass, his sickle hour,
 Who hast by waning grown, and therein show'st
 Thy lovers withering, as thy sweet self grow'st—
 If nature, sovereign mistress over wrack,
 As thou goest onwards still will pluck thee back,
 She keeps thee to this purpose, that her skill
 May time disgrace, and wretched minute kill.
 Yet fear her, O thou minion of her pleasure ;
 She may detain but not still keep her treasure.
 Her audit, thought delayed, answered must be,
 And her quietus is to render thee.

이 시는 유일하게 12행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이 자기애로 인해 “세월을 떨치”하고 자손을 남기지 않는다면 “세월이 결산할 때 그대를 양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자연은 시간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청년 역시 그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이다. 청년의 자기애를 아폴로적 속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순결과 도덕성을 결부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시인은 순결은 자연에의 거역이며 버려야 할 것임을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시인의 사랑은 청년의 자기애로 인해서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일방적 사랑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주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는 이상적인 사랑을 소넷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셰익스피어의 근본의도를 말하는 것이다.

청년그룹의 서두에서 시인이 청년에게 결혼하기를 권고하고 자신의 시에서 불멸하기를 소망하는 단계가 지나면 시인은 청년에게 열정적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시인과 청년의 사회적 신분과 생활방식의 차이, 청년의 자기애, 경쟁시인과의 갈등 등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흑부인이 가장 깊은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청년에 대한 시인의 사랑이 아무리 정열적인 것이라 해도 육체적인 관계는 성립되지 못한다. 흑부인 그룹의 후반부는 이 여성과의 관계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삼각관계는 단순히 16세기 시에 나타난 하나의 유행이라기 보다는 셰익스피어가 사랑의 본질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흑부인의 역할은 단순히 하나의 연애관행을 위한 설정은 아니다. 오히려 청년그룹에서 미의 본보기이며 연

인의 가장 고상한 열망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체로서의 역할은 청년이 하고 있다. Martin(84)은 엘리자베드 시의 연애시의 전통 즉 페트랄크식 연인의 역할이 청년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모와 품격을 갖춘 여성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페트랄크식 연애시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소넷 시인과 청년의 관계가 이에 부합된다는 견해는 적절하겠으나 시인은 청년에 대해서 성적 욕망은 경험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욕망을 경험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사랑을 바치는 아름답고 사랑스런 여인을 여성이 아닌 남성을 택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시인의 사랑이 우정 이상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것이 소넷연구자들의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20의 경우를 보자.

자연의 손이 화장한 여인의 얼굴을 한,
 그대는 나의 정열을 지배하는 여성같은 남성.
 여성의 고운 마음씨, 그러면서도
 부정한 여자와 달라 변할 줄 모르네.
 여인의 눈보다 영롱한 그대 눈은 거짓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마다 도금한 듯 하여라.
 아름다운 용모의 사나이로 모든 용모 제어하며,
 남성의 눈을 유혹하고 여성의 눈을 현혹시키네.
 그대는 애초에 여자로 태어날 것을,
 자연이 그대 빛다가 사랑을 느껴
 한가지를 더 첨가하여 나를 실망시켰네
 내게는 아무 쓸모 없는 것을.
 그대 여성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졌으니
 내것은 그대의 사랑 뿐, 그대 애정은 그들의 것.(20)

A woman's face, with nature's own hand painted,
 Hast thou, the master mistress of my passion—
 A woman's gentle heart, but not acquainted
 With shifting change, as is false women's fashion ;
 An eye more bright than theirs, less false in rolling,
 Gilding the object whereupon it gazeth ;
 A man in hue all hues in his controlling,
 Which steals men's eyes and women's souls amazeth.
 And for a woman wert thou first created,
 Till nature as she wrought thee fell a-doting,
 And by addition me of thee defeated,
 By adding one thing to my purpose nothing.

But since she pricked thee out for women's pleasure,
Mine be thy love, and love's use their treasure.

여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 시의 서두에 나타나 있는 청년을 향한 시인의 사랑이 마치 연인을 두고 하는 애정 표현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오히려 이성을 향한 표현보다 더 열렬하게 나타나 있다. 청년이 여성과 같은 미모와 마음씨를 갖고 있어서 남성을 유혹하고 여성을 현혹시킨다고 하면서, 자연이 청년을 여자로 만들려고 했다가 실수로 남자가 되게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의 우정은 내것이되 love's use는 여성의 것”이라 한다.

2행의 “나의 정열을 지배하는 여성같은 남성인 그대”와 couplet의 “여자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그대이니, 그대의 사랑 만이 내것이요, 그대의 애정은 여성들의 보배”라는 내용이 소넷학자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특히 master mistress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동성애적 시각을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과의 사이에 이견이 분분하다. 학자에 따라서는 혐오와 분노를 느낀다고 하면서 동성애적 표현으로 인정해 버리기도 하고(Pequigney, 30) Edmund Malone(20:241)은 셰익스피어시대의 관습적인 표현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Dover Wilson(117)은 이를 반박하면서 master-mistress라는 말은 아마도 남성애에 대한 최초이자 최후의 표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호칭으로 mistress가 사용되었는지는 규명하기가 어렵다. 1행의 passio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C.S.Lewis(503) 역시 20의 경우는 물론 청년그룹에 표현되어 있는 시인의 청년애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평범한 남성 사이의 우정이라 하기에는 너무 열정적이라 하면서 16세기 문학에서 친구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는 이러한 언어사용은 유례가 없다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T.G.Tucker(96)는 남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passion이란 어휘는 라틴어의 passio가 어원이며 strong feeling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고, A.L.Rowse(14)도 마지막 quatrain과 couplet을 인용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소넷 시편들에 대해 맹위를 떨쳐온 대부분의 난처한 논쟁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Marlow와 Bacon

의 작품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동성애적 흔적이나 그런 주제에 대한 관심 조차도 조금도 없다.

그러나 Martin(61)의 말은 경청할만하다.

표면상으로 보더라도 말의 어감이나 분위기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20번 소넛은 분명히 미모의 친구에 대한 성적 관심의 포기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휘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유의할 때 우리는 이 소넛에서 놀랄만한 이중성 내지 진술의 다양성을 발견하게 된다. …… 소넛 20번의 경우 셰익스피어는 한 면에서는 “아니오”라 말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예”라고 말하고 있다.

시의 표면적인 분위기나 어조로 보아서는 청년에 대한 성적 관심의 표명이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피상적인 것과는 상반되는 내면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성적 욕구와 이에 대한 이성적 자제가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소넛의 독특한 표현으로 시인과 청년의 관계를 어떤 편향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sexuality라는 말은 인간을 다 함께 끌어들이는 모든 충동을 뜻한다고 밝히면서 시인의 감정이 성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쓰인 것이라고 한다.

회람에서는 가장 남성다운 남자들은 성도착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었으며 남자의 사랑을 자극한 것은 소년의 남성적 특성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여성적인 그의 특성과 아울러 여성과 유사한 그의 신체적 특성이었다. 즉 그의 수줍음, 정숙함, 지도편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성의 욕구 등등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경우에서처럼 성적 대상은 동일성의 누군가가 아니라 양성의 특성을 합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다. 말하자면, 남성을 추구하는 충동과 여성을 추구하는 충동 사이의 하나의 타협이 있다는 말인데 대상의 육체(즉 생식기)는 남성적일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래서 성적 대상은 사랑을 구하는 주체 자신의 일종의 양성적 본질의 반영일 것이다. (Strachey, 7:144).

20의 경우에는 3행의 “a woman’s gentle heart”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여성적인 정신적 특성에 해당되고 육체적으로 여성과 유사한 성질은 “a womans face”와 부합하고 있다.

남성이 동성에 대해 느끼는 이상적인 사랑은 자신의 양성적 본질을 반

영하는 것이며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성욕도착자인 남성애 있어서 사랑을 자극받은 것은 남성다운 남자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성과 유사한 남자였다는 점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도 그러한 감정의 연속관계를 깨닫고 있었다는 점이며 셰익스피어의 경우 애정은 보편적인 것이며 애정 그 자체는 하나라는 것이 Hubler(99)의 주장이다. 이러한 사랑의 복합성은 시인 자신의 본성 내지 기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의 양성적 본성이 청년에게서 이성적 매력과 동성적 매력을 함께 느낀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로이드의 이론에 부합시키고 있다.(Martin, 86)

육체적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20에서는 강하게, 36에서는 어느정도 나타나 있지만 현대 심리학이 동성에 대한 애정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시인의 청년애에 대한 애정이 보편적인 인간애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이 친구를 잘못만들었다”는 표현이 가능하고 그것은 또한 흑부인과의 관계에서와 같은 죄의식이나 음란함이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청년은 시인의 “all the world”(12:5)이며 “better part”(39)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넷 전체에 나타나 있는 남성간의 사랑을 20과 36 두 편 만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그것은 르네상스시대의 관습을 무시하고 엘리자베드인들의 전통적 사고를 도외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당시의 남성간의 우정은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었고 혈연이나 남녀간의 애정보다 우위에 있었다.(Hubler, 260) 그것은 Plato의 *Symposium*이 남성간의 우정을 토대로 한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넷의 열정적인 우정은 그리스에서 셰익스피어에 이르는 전통적인 관습의 것일 뿐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그룹에 나타나 있는 시인과 청년의 관계는 전통적인 궁정연애에서 보는 것과 같은 남녀간의 애정관계와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일견 시인의 일방적인 사랑의 호소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 시인과 청년의 관계는 셰익스피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

량의 필연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또한 육체적인 사랑이 배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청년 그룹에서 보는 청년의 면모는 아폴로적 인물의 구현인테 반해서 흑부인은 디오니소스적 인물의 구현이다. 그녀는 우선 음악을 사랑한다.

내 음악인 그대가 고운 손가락으로
 축복받은 건반을 두드릴 때,
 내 귀를 현혹케 하는 금속성 협화음을
 그대가 곱게 일으킬 때,
 부드러운 그대 손바닥에 입맞추려
 빨리 뛰는鍵盤을 난 얼마나 자주 부러워하는가. (128:1-6)

How oft, when thou my music music play'st
 Upon that blessed wood whose motion sounds
 With thy sweet fingers when thou gently sway'st
 The wiry concord that mine ear confounds,
 Do I envý those jacks that nimble leap
 To kiss the tender inward of thy hand,

그러나 그녀는 결코 당시의 기준으로 보아 미인이 아니며 피부는 검고 머리카락은 검은 철선(wires)이며 뺨에서는 장미빛을 찾기 어렵다. 셰익스피어시대에는 연인을 이상화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의 진부함은 어떤 상식보다도 더했다.(Ramsey, 149)시인은 130에서 연인에 관한 과장된 묘사에 대해 조롱을 서슴치 않는다.

내 연인의 눈은 조금도 태양같은 데가 없어,
 산호는 그녀 입술의 붉음보다 더 붉고 ;
 눈이 희다면 그녀 가슴은 검은 편 ;
 머리카락이 철사라면, 그녀 머리는 검은 철사.
 나 빨갛고 흰 장미 보았어도
 그녀 뺨에서는 그런 장미빛 볼 수 없네.
 어떤 향수에는 그녀의 입김보다
 더 좋은 냄새가 있네.(130:1-8)

My mistress' eyes are nothing like the sun—
 Coral is far more red than her lips' red—

If snow be white, why then her breasts are dun-
 If hairs be wires, black wires grow on her head :
 I have seen roses damasked, red and white,
 But no such roses see I in her cheeks,
 And in some pérfumes is there more delight
 Than in the breath that from my mistress reeks.

흑부인의 외관에 대해서는 “이마가 까마귀같이 검다”(127:9)고 하고 위 시에서와 같이 피부 눈 머리카락이 검다고 되어 있다. 그녀를 흑부인 (dark lady)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비롯하는데 검다는 것은 물론 종족적 개념은 아니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실존의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 정체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당시의 전형적 미인이 피부가 희고 금발이며 회색눈을 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검은 피부의 여인에게 시인이 나 청년이 함께 빠져든다.

그녀는 지적 명료성과는 거리가 멀며 사람을 미혹시키는 요염함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성애의 대상인 시인을 의도적인 거짓으로 기만한다.

내 연인이 자기가 진리의 화신이라 말할 때
 거짓임을 알면서도 나는 믿노라.(138:1-2)

When my love swears that she is made of truth,
 I do believe her though I know she lies,

또한 그녀는 육체적 사랑에의 유혹으로 시인을 고뇌에 빠지게 하는 여인이다.

내 영혼이 내 육신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사랑에서 승리하리라네 ; 육신은 더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대 이름 듣자 일어나며
 자기의 전리품이라 그대를 지적하네. 육신은 뿔내며
 그대의 천한 종 되기 바라네
 그대 위해 일어서고 그대 옆에 쓰러지기 위해.
 그대를 연인이라 함은 내 양심 없음이 아니라
 그 사랑 위해 나 일어서고 쓰러지노라.(151:7-14)

My soul doth tell my body that he may
 Triumph in love; flesh stays no farther reason,
 But rising at thy name, doth point out thee
 As him triumphant prize. Proud of this pride,
 He is contented thy poor drudge to be,
 To stand in thy affairs, fall by thy side.

No want of conscience hold it that I call
 Her "love" for whose dear love I rise and fall.

시인은 흑부인을 "마음 고운 사기꾼"(151:3)이라 부르고 "내 육신이 더러운 육신의 모반에 가담했다"고 실토하고 있다. 시인의 "육신이 천한 종이 되기를 바라고" 시인은 이 여인과의 "사랑을 위해 일어나고 쓰러진다."

이와 같이 시인과 청년은 외관이나 기질이 전혀 상반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고 또한 시인과 이들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묘사되는 사랑 역시 마찬가지다. 시인과 흑부인과의 관계는 육체적 사랑의 전형으로 일관되어 있다.

내 사랑은 열병 같아라
 병은 그것을 더 오래 가게 하는 것을 동정하며
 그것을 더 길게 끌고 갈 것을 먹는다.
 입맛 잃은 미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내 병 고칠 의사인 이성은
 처방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나를 떠나고
 나는 절망 끝에 알게 되었네
 치료 받지 않는 열병은 죽음인 것을.
 고치기엔 늦었고 이성은 이미 가버렸네
 끝없는 불안으로 광중에 빠져
 미친사람같은 내 생각 내 말이
 대중할 수 없고 허황되도다.
 나 아름답다 선언하고 찬란하다 생각하노라
 지옥같이 검고 밤같이 어두운 그대를.(147)

My love is as a fever, longing still
 For that which longer nurseth the disease,
 Feeding on that which doth preserve the ill,
 Th'uncertain sickly appetite to please.
 My reason, the physician to my love,
 Angry that his prescriptions are not kept,
 Hath left me, and I desp'rate now approve

Desire is death, which physic did except.
 Past cure I am, now reason is past care,
 And frantic mad with evermore unrest,
 My thoughts and my discourse as madmen's are,
 At random from the truth vainly expressed ;
 For I have sworn thee fair, and thought thee bright,
 Who art as black as hell, as dark as night.

열병같은 사랑은 “미각을 즐겁게” 할 뿐 “지옥같이 검고 밤같이 어두운 그대”를 아름답다고 선언하고 찬란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와 같이 시인은 148, 149, 150에서도 율옥때문에 상실된 이성을 탄식하면서도 흑부인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다.

129에서 시인은 “음욕을 행하는 것은 수치스런 낭비에 의한 정신적인 소모”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동안이나 얻은 뒤도 “광증”이며, 행위 이후는 “경멸”(129:1-3)이라 하면서 율적 사랑의 감정 추이를 명세하고 있다. 그러나 137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음욕을 분석한다.

그대 눈먼 바보같은 사랑이여, 내 눈을 어찌했기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미가 무언지 또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최악을 최선이라 생각하네.
 내 눈이 한편으로 치우친 기능에 현혹되어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항만에 정박했더니
 그대는 어찌하여 눈의 허위인 낙시를 만들어
 감히 나의 판단을 구속하려 하는가.
 온 세상의 공동광장으로 알고 있는 그곳을
 왜 내 마음은 사유지라 생각해야 하는가?
 왜 또 나의 눈은 이것을 보면서 아니라 하는고?
 그 추한 얼굴에 참된 미를 주려고.
 진정한 사물을 마음과 눈이 잘못 보았으니,
 허위라는 병에 마음과 눈이 전이되었네.(137)

Thou blind fool love, what dost thou to mine eyes,
 That they behold and see not what they see ?
 They know what beauty is, see where it lies,
 Yet what the best is take the worst to be.
 If eyes corrupt by over-partial looks
 Be anchor'd in the bay where all men ride,
 Why of eyes' falsehood hast thou forged hooks,

Where to the judgement of my heart is tied ?
 Why should my heart think that a several plot
 Which my heart knows the wide world's common place ?
 Or mine eyes, seeing this, say this is not
 To put fair truth upon so foul a face ?
 In things right true my heart and eyes have erred,
 And to this false plague are they now transferred.

시인은 경험에 입각해서 율옥의 면모를 통찰하고 있고 흑부인을 다룬 소넷에 국한되어 있는 율옥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다. 흑부인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시인의 갈망이 그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환상을 실제로 느끼게 한다. 그래서 시인은 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미에 있어서 최악인 것을 최선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는 연인의 허위를 눈으로 보고 인식하며 마음이 그것을 또한 깨닫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눈이 연인과의 율옥 때문에 미혹되고 “눈먼 바보”가 된다. Frye교수는 흑부인이 사랑보다는 성욕의 화신이라고 말하고 있다.(Hubler, 52)
 흑부인은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 시인을 고뇌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청년과도 관계를 가짐으로써 청년을 사랑하는 시인의 고통을 증폭시킨다.

그대가 그녀를 얻은 것이 반드시 내 슬픔은 아니오,
 그러나 내 그녀를 사랑했으니,
 그녀가 그대를 가진 것이 내 슬픔이요,
 나를 더욱 사무치게 하는 사랑의 손실이네.
 사랑하는 범법자들이여, 나 그대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리라.
 내 그녀 사랑함을 그대 앞으로 그대 그녀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그녀 나를 저버리네.
 날 위해 내 친구로 하여금 그녀를 다루어보게 하면서.
 나 그대 잃으면 내 손실 그대 이득이오
 내 그녀 잃음으로 벗은 그녀를 얻게되네.
 둘은 서로 얻고 나는 둘 다 잃으니,
 둘은 날 위해 이 십자가 내게 지우네.
 그러나 기쁘게도 벗과 나는 하나이니.
 감미로운 아침이여! 그녀 나만을 사랑하네.(42)

That thou has her, it is not all my grief,
 And yet it may be said I loved her dearly ;
 That she hath thee is of my wailing chief,
 A loss in love that touches me more nearly.

Loving offenders, thus I will excuse ye :
 Thou dost love her, becuase thou know'st I love her,
 And for my sake ev'n so doth she abuse me,
 Suff'ring my friend for my sake to approve her.
 If I lose thee, my loss is my love's gain,
 And losing her, my friend hath found that loss :
 Both find each other, and I lose both twain,
 And both for my sake lay on me this cross.
 But here's the joy, my friend and I are one ;
 Sweet flatt'ry, then she loves but me alone.

시인은 사랑하는 벗과 연인을 한꺼번에 상실하는 슬픔에 빠진다. 친구를 잃음은 연인의 이득이 되고 그녀를 잃음은 친구에게 있어서는 그녀를 얻는 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둘은 서로 얻고 나는 둘 다 잃게 되었다고 탄식한다. 여기서 시인은 청년과 흑부인을 모두 다 사랑하는 데 반해 두 사람은 시인을 배반하고 있다. 시인은 흑부인의 배신에 대해 쓰고난 뒤에도 수십편의 소넷을 청년에게 할애하고 있는데 친구와의 사랑은 시인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한 반면 여인과의 사랑에서는 고통 만을 얻고 있다.

144는 애정과 우정이라는 두 개의 대립된 경험에 빠져 있는 시인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세계이다.

내게 두 애인 있으니 하나는 위안이나 하나는 절망이네,
 두 요정처럼 언제나 나를 유혹하네 ;
 나의 선한 천사는 수려한 남자요
 나의 악령은 피부가 검은 천사라.
 이 마녀는 나를 속히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내 선한 천사를 유혹하여 내 곁에서 떠나려 하고,
 내 성자를 악마로 타락시키려 하네.
 그의 순결을 그녀의 더러운 음욕으로 피어서.
 내 천사 악마로 변했는지
 나 의심할 뿐 직접 말 못하네.
 들어서 정답게 내 곁을 떠나
 한 천사 다른 것의 지옥에 있으리라.
 잘은 모르되 의심속에 사노라,
 내 악마가 내 천사를 추방할 때까지.(144)

Two loves I have of comfort and despair,

Which like two spirits do suggest me still ;
 The better angel is a man right fair,
 Two worser spirit a woman coloured ill.
 To win me soon to hell, my female evil
 Tempteth my better angel from my side,
 And would corrupt my saint to be a devil,
 Wooing his purity with her foul pride.
 And, whether that my angel be turn'd fiend,
 Suspect I may, yet not directly tell,
 But being both from me both each friend,
 I guess one angel in another's hell.
 Yet this shall I ne'er know, but live in doubt,
 Till my bad angel fire my good one out.

한 쪽은 영혼과 빛의 세계, 다른 쪽은 욕감과 미혹의 세계이다. 천사와 악령, 성자와 악마, 천국과 지옥, 순결과 음욕 등의 대립적 이미지들이 혼재되어 있다. 시인이 겪는 두가지 사랑의 경험은 청년과의 관계에서 위안을, 흑부인과의 관계에서 절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려한 청년은 도덕적 순수성을, 살갗이 검은 여인은 도덕적 불결성을 은유하고 있다. 또한 청년과 흑부인의 상반된 면모를 플롯의 평면에서 서로 연결짓고 있으며 단일 패턴 단일경험상에서의 두가지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찬사인 청년과 악마인 연인이 내통하고, 시인은 천사가 악마의 지옥에 빠져 있지않나 의심하고 있다. 12행의 지옥은 5행의 지옥과 다르다. 5행의 지옥은 심리적 지옥이지만 12행에서는 해부학적 의미, 즉 여성의 성기를 의미함으로써 14행의 추방하다(fire out)와 연결되어 성병의 퇴치를 의미한다(Pequigney, 93) Philip Edwards(65)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과 흑부인의 육체관계가 아니라 청년의 도덕적 타락이며 그에 대한 시인의 이상적 사랑을 흑부인과의 관계로 인해 오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흑부인과 청년은 시인의 영혼의 양면적 표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넷 전반에 걸쳐 시인의 욕욕에 대한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 디오니소스적 사랑의 공포에 아폴로적 이상이 더럽혀질지 모른다는 시인의 의구심이 드러나 있고 이것은 시인의 내면에서 갈등하는 이 두 상반된 사랑의 본질인 것이다.

그런데 여성을 사이에 둔 두 남성의 관계나 한 남성을 사이에 둔 두 여성의 관계가 아닌, 청년을 중심으로 한 시인과 흑부인의 삼각관계라는 특이한 설정에 대해서 Freud는 성욕도착(perversion)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규범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 규범은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에 입각하고 있고 사회 집단의 지배적인 경향과 배치되는 성욕 이상자를 지칭한다.(Laplanche and Pantis, 306-9)

그러나 시인은 “나는 나”(I am that I am)(121:9)라고 완강하게 자신을 비호하고 오히려 “그들은 비뚤어졌어도 나는 곧으리”(121:11)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애욕의 대상인 흑부인의 라이벌로서의 청년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는 청년의 고결성이 흑부인의 유혹에 빠짐으로써 상실될 것을 두려워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시인과 흑부인과의 관계는 타락과 불순한 동기로 특징되는 육체적 사랑으로 일관되어 있다. 물론 청년과 흑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로맨스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흑부인의 면모는 청년의 페트랄크적 연인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물론이고 시인과 청년의 아폴로적 사랑을 이상적인 것으로 드러내기 위한 설정으로 보아진다.

III.

지금까지 시인과 청년, 시인과 흑부인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셰익스피어 소넷에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양면의 사랑이 통합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1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는 위안이요 하나는 절망”인 두 가지 사랑, 청년과의 사이에서 나타난 동성적 이상주의 대 흑부인과의 관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성간의 정열 내지 육욕의 병치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았다.

물론 C.F.Williamson(192)이 지적한 대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이해는 그의 소넷에서 하나의 일관된 맥을 따라 흐르고 있지는 않다. 확신과 의심이 교차되는 심리적 갈등도 있고 육욕과 정신적 사랑의 분리와 통합도 드러난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사랑에 대한 보다 깊고 포

괄적인 이해를 얻게 한다.

시인은 모든 상호 갈등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소넷에서 항상 관용적이며 극기성을 발휘하고 있다. C.S.Lewis(505)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넷에 나타나 있는 克己내지 자기 절제는 결코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물론 아폴로적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면모에서 나타나 있다. ... 셰익스피어의 사랑은 에로틱한 것이거나, 아버지의 사랑이건 자식의 사랑이건 간에, 우호적인 것이든 봉건적인 사랑이든 간에 온갖 사랑의 본질에서 끝난다. ... 결국 그 사랑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전체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개요는 내던져지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묻기를 그만두게 하는 그런 것이다.

궁극적으로 셰익스피어가 소넷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두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랑의 제 면모를 통해서 참된 사랑의 가치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사랑인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사랑의 열망, 질투 고뇌 등의 심리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관용과 절제를 견지하는 시인의 태도는 부정적인 측면의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극복하고 승화된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116에서 보는 것과 같은 너와 내가 사랑이라는 추상성 속에 분해되어버리고 시간을 거부하고 승리하는 사랑 그 자체의 위대한 목소리만 남게 된다. 또한 진실한 마음과 마음의 결합(116:1)인 사랑의 세계는 시간의 세계, 변화의 세계, 환상과 미망의 세계속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임을 주장한다. 이 사랑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이며 청년그룹에 나타나 있는 연인은 셰익스피어 사랑의 실제인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집요하게 탐색해온 모든 사랑의 면모들은 결국 시간, 죽음, 인간의 이기적 쾌락 추구의 약점 등을 극복하는 사랑에 최선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Works cited

- Booth, Stephen. ed. *Shakespeare's Sonnets*.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 Press, 1977.
- Edwards, Philip. *Shakespear ; A Writer's Progress*. Oxford & New

- York : Oxford Univ. Press, 1986.
- Green, Martin. *The Labyrinth of Shakespeare's Sonnets : An Examination of Sexual Elements in Shakespeare's Language.* London : Charles Skilton LTD., 1974.
- Hubler, Edward. ed. *The Riddle of Shakespeare's Sonnets.* New York : Basic Books, 1962.
- Knight, G.Wilson. *The Mutual Flame.* London : Methuen & Co. Ltd., 1955.
- Lewis, C. S. *English Literature in Sixteenth Century, Excluding Drama.* Oxford : Clarendon, 1954.
- Malone, Edmund. ed. *The Plays and Poems of William Shakespeare.* London, 1981.
- Martin, Philip. *Shakespeare's Sonnets : Self, Love and Art.* Cambridge Univ. Press, 1972.
- Pequigney, Joseph. *Such is my Love : A Study of Shakespeare's Sonnets.* Chicago and London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5.
- Ramsey, Paul. *The Fickle Glass : A Study of Shakespeare's Sonnets.* New York : AMS Press, 1979.
- Strachey, James. 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London : Hogarth Press, 1965.
- Tucker, T.G. ed. *The Sonnets of Shakespeare.*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24.
- Williamson, C. F. "Themes and Patterns in Shakespeare's Sonnets." *Essays in Criticism* 26 (July, 1976) : 191-207.
- Wilson, John Dover. ed. *The Sonnet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66.

